http://dx.doi.org/10.14400/JDC.2016.14.6.1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자 재정의를 중심으로

이향수*, 이성훈**, 최정아***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행정학전공*,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A Stud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s Digital Poverty: Focusing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Multicultural Families

Hyangsoo Lee*, Seong-Hoon Lee, Jeong-A Choi*****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Dept. of Digital Cultur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요 약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2012년 정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격차조사를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소외계층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결혼이주민 중 정보소외대상으로 정보격차조사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결혼 혹은 이주노동자 등의 신분으로 결혼이주남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소외대상에 결혼이주남성까지 포함해야 한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가정의 아동 역시 정보격차문제를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보격차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나 향후 경제격차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범위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정보격차, 정보격차조사,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아동

Abstract The definition of digital poverty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 was used at the first digital divide survey in 201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and redefine digital poverty targets of digital divide survey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suggest to reexamine multicultural families rather than limiting to Immigrant women for digital pover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urvey has been limited to the migrant women for information gap survey of married migrants. But, It is expected to increase immigrant men in the future. It should include migrant men in the marginalized target in terms of preparat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the current survey has been limited to the migrant women for information gap survey. But, It is expected to increas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information gap is likely to be linked to differences in education or future economic disparitie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t should includ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marginalized target in digital divide survey.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Digital Divide, Digital Divide Survey, Married Migrant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ceived 25 March 2016, Revised 25 May 2016
Accepted 20 June 2016, Published 28 June 2016
Corresponding Author: Seong-Hoon Lee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Email: lee.seonghoon@yahoo.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사회의 다문화 혼인은 2014년 현재, 24,387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격차를 논의함에 있어서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교육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있어서 우리사회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소위 우리사회에서 정보소외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북한이탈주민등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역시 정보소외집단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SNS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으로 인해 정보소외현상은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경우 기존 정보격차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이 가중되면서 정보격차는 경제격차나 교육격차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즉, 정보단절로 인한 의사결정의 질 저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격차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1, 2, 3, 4, 5].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이들을 위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주남성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를 어떤 시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다문화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이나 이주남성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넓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지수를 조사함에 있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결혼이주민 가정의 정보격차현황

2.1 결혼이주민과 다문화사회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그룹과 결혼이주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9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3D업종은 내국인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노동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또한 농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의 결혼이 어려워지며 동남아시아 등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이주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국인과 혼인한 사람을 말한다. 결혼이민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문화인구와는 그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다문화 인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6]. 반면 결혼이민자는 귀화 또는 인지를 제외한 한국 국적 취득자를 말하며,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이라고도 한다[7]. 인지는 특별귀화라고도 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8]. 즉, 결혼이민자는 귀화나 인지와는 다른 국적취득자의 경우가 해당된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혼인은 2014년 현재, 24,387건으로 2013년보다 9.5% 감소했으며,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이다. 특히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전체 다문화 혼인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결혼은 24.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주로 외국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 출생은 21,174명으로 전년보다 0.5% 감소,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전년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후 매년 28%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최근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0.6%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150,994명으로 전년대비 0.09% 증가하는데 그쳤다. 성별로는 여성이 128,193명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도 22,801명으로 15.1%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 40.2%, 베트남 26.3%, 일본 8.3%, 필리핀 7.3%순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총 국가 수는 195개국이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타이 등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9]. 또한 2014년 현재 다문화 혼인 종류별(초혼, 재혼) 비중을 보면 초혼남자와 초혼여자의 비중(59.2%)이 한국인사이 초혼남자와 초혼여자의 비중(80.1%)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혼인의 경우 남자와 여자 중 한쪽의 경우 재혼인 경우가 한국인간 혼인 종류보다 많았으며, 남자와 여자 둘다 재혼인 경우 역시 한국인간 둘다 재혼인 경우보다 많았다.

또한 다문화 혼인을 한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23.0%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21.5%), 30대 후반(19.2%) 순으로 높았다. 35세 이상의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20대와 30대 초반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또한 다문화 혼인 중 한국인(출생기준)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30대 후반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문화 혼인 중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과 한국인(출생기준) 모두에서 45세 이상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2.2 정보격차대상으로서 결혼이주민

통계청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2014년 현재 성별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남자의 다문화 혼인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서 한국인간 혼인에 비해 약 3년이 늦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한국인간 평균 혼인연령인 30세에 비해 약 2.2세가 더 어리다[6]. 또한 다문화 혼인을 한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23.0%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21.5%), 30대 후반(19.2%) 순으로 높았다. 35세 이상의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20대와 30대 초반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한편, 다문화 혼인 중 한국인(출생기준)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30대 후반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문화 혼인 중 외국인・한국인(귀화기준)과 한국인(출생기준) 모두에서 45세 이상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 혼인 비중을 보면, 2008년에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비중(75.5%)이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혼인비중(20.3%)보다 많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두 유형간의 격차가 좁혀져 2014년에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비중(63.6%)과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혼인비중(24.1%)의 차이가 2008년보다는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체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이 포함된다. 결혼이민자 그룹은 처음부터 조사대상은 아니었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2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10].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대상에 다문화가정이 포함된 것은 역시 2010년 이후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결혼이민자를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도 보듯이 결혼이주민은 2014년 현재 그 규모가 150,994명으로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이 현재 8.0%로서 2008년 11.2%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해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Table 1> Population of Digital Divide Survey for Marriage Immigrants

division	contents
Marriage Immigrants	Marriage immigrants over 18 years old

현재 결혼이주민의 정보격차지수 조사 표본 설계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 결혼이민자의 연령/권역/출신국적별 구성비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고 있는데,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여성이기에 성별으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격차지수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 대비 격차값을 말한다. 즉,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정보격차지수 역시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2015년 현재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대략 8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1]. 즉,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14%정도는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2.3 정보격차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은 결혼이주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2014년 현재 다문화가정에서의 출생아는 21,174명으로 2013년(21,290명)보다 116명(0.5%) 감소하였다. 한국인 부모 및 다문화 부모를 포함한 전체 출생이 43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으며,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4.9%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출생아 중 남아는 10,686명, 여아는 10,488명,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1.9명으로, 한국인(출생기준) 부모 출생성비(10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5만 5,780명으로 2012년(4만 6,954명)에 비해 18.8%(8,826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생 수(652만 9천명)의 0.9%로 그 비중도 2009년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2].

다문화 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를 보면, 2012년 현재 조사대상 중 약 30.9%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며,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약 31.4%인 것으로 나타나 약 62.3%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환경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정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일반국민 가정 아동들에 비해 정보마인드나, 정보기기 이용능력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매우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우리정부는 이들에 대한 문제 진단에 있어서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보격차지수 조사 대상에 있어서 그들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현재는 결혼이주민 중에서도 여성이주민만을 정보격차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접근방법이 옳은 것인가? 이하에서는 우리정부가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대상의 정의가 과연 적절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2> Literacy differnces between general student-multicultural students for smart devices(t-test)

question	multicultural		general		t	sig
	average	N	average	N		
literacy for smart devices 1	3.97	382	4.42	325	-4.960	.000**
literacy for smart devices 2	4.07	382	4.45	326	-4.249	.000**
literacy for smart devices 3	4.09	385	4.47	326	-4.338	.000**
literacy for smart devices 4	4.04	385	4.48	326	-4.884	.000**

* p<0.05, ** p<0.01
sourc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5.

3. 정보소외계층으로서 결혼이주가정에 대한 재정의

결혼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대상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즉, 정보격차 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선행되어야만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정보격차조사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1 정보격차조사 대상자로서의 이주남성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대상은 결혼이주민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Table 1>에서도 보듯이 결혼이주민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Table 3>에서도 보듯이 결혼이주민들의 유형별 혼인 비중을 보면, 2008년에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비중(75.5%)이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혼인

비중(20.3%)보다 많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기에는 결혼이주민이 대부분 여성이었으나, 2014년 현재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비중(63.6%)과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혼인비중(24.1%)의 차이가 예전에 비해 차츰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민 모집단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성별할당을 고려하여 남성도 조사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3> Multicultural marriage type size and weight

(unit:case, %)

	2012	%	2013	%	2014	%	Growth %
multicultural	29,224	100.0	26,948	100.0	24,387	100.0	-9.5
korean man+Foreign woman	20,034	68.6	17,633	65.4	15,505	63.6	-12.1
foreign man+ korean woman	6,394	21.9	6,290	23.3	5,871	24.1	-6.7
Etc	2,796	9.6	3,025	11.2	3,011	12.3	-0.5

source: Statistical Office, 2015

3.2 정보격차조사 대상자로서의 다문화가정 아동

최근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학생수의 0.9%로 그 비중도 2009년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2, 13].

<Table 4> Multicultural birth number and sex ratio

(unit: number, %, boys per every 100 girls

	sum			parents of multicultural			parents of korean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Births	484,550	436,455	435,435	22,908	21,290	21,174	456,665	410,483	409,823
weight	(100.0)	(100.0)	(100.0)	(4.7)	(4.9)	(4.9)	(94.2)	(94.0)	(94.1)
growth	13,285	-48,095	-1,020	894	-1,618	-116	12,189	-46,182	-660
	2.8	-9.9	-0.2	4.1	-7.1	-0.5	2.7	-10.1	-0.2
boys	248,958	223,883	223,356	11,745	10,838	10,686	234,521	210,630	210,399
girls	235,592	212,572	212,079	11,163	10,452	10,488	222,144	199,853	1994,24
Sex ratio	105.7	105.3	105.3	105.2	103.7	101.9	105.6	105.4	105.5

source: Statistical Office, 2015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학률은 국내 성장 자녀들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의 진학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높아지면서 진학률이 점점 낮아져 고등학교 진학률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일반국민의 자녀들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환경 역시 그리 넉넉지는 않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의 어려움의 이유 역시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정보소외계층이 될 가능성 역시 커 보인다. 현재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에 결혼이주민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자녀들은 제외되어 있다. 결혼이주민을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켰다면 그 자녀들 역시 포함하여 정보소외계층 모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혼이주민 뿐 아니라 그 자녀까지 포함하여 정보소외계층 모집단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가 과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모집단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하는 연구 질문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실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여 정보격차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내의 아동은 정보격차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실태조사 모집단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매우 시급하다[14, 15, 16, 17, 18].

정보소외계층으로서 결혼이주민가정에 대한 재정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우리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격차지수 및 조사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 올바르게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만 그 해답 역시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으로서 결혼이주민가정에 대한 정보소외계층 재정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결혼이주민 중 정보소외대상으로 정보격차조사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결혼 혹은 이주노동자 등의 신분으로 결혼이주남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소외대상을 좀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가정의 아동 역시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보격차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나 향후 경제격차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범위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가정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모집단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보소외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향후 정부의 정보격차대상으로서 결혼이주가정을 다룸에 있어서는 결혼이주남성 및 그 자녀까지 포함하여 다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 대상을 올바르게 정의해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을 잘못 정의하는데 대한 오류를 탈피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사례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병행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REFERENCES

[1] Y. M. Ku, M. K. Kim, T. W. Lim, C. Y. Kim, “A study on Activating Mid-Long Term Education of Damage Prevention for Information Alienated Class in the Smart Environmen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2] W. S. Kang, H. S, Yang, “A Study on Efficient Policies of solving the Digital Divide for Weak Layers in the Smart Phone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0 no.1, pp.29 - 38, 2012

[3] S. Y. Lee & M. J. Cheong, “A Study on ‘Platform’ e-Government for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a Multicultural Society of S.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 pp.1-12, 2014.

[4] C. J. Yoo, K. T. Kim, S. H. Lim, “The Study on welfare serv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5, pp.19-26, 2012.

[5] S. K. Cho & Y. Noh, “A Study on web-based employment model for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2 No.1 pp.75-91, 2004.

[6] Statistical Office, Multicultural Vital Statistics 2014, Statistical Office, 2015

[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online] [cited 2015.11.15.])

[8]B. J. Goo, “Materials describing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Justice Immigration Foreign Policy Headquarters, 2011.

[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online] [cited 2015.11.15.]

[10] H. S. Lee, S. H. Lee, & J. A. Choi, “Redifining Digital Poverty : A Study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11] NIA, “The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Index and Status”, 2015.

[12] Ministry of Education., “Status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inistry of Education., 2012.

[13] J. S. Park, I. O. Park, H. J. Song, & C. J. Song,, “ ICT in education policy options for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of disadvantaged students”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5..

[14] H. Y. Kim, “Handicapped Persons and Internet : Comparing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0 pp.75-91, 2013.

[15] M. Y. Kim, D. J. Seo, J. B. Byun, J. K. Kang,

"ICT-based Living in the Contact Type Service Model for Self-life Suppor t of the Elder ly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4, pp.25 - 38, 2015.

[16] I. K. Jeon, J. H. Chung, "Study of GUI design convergence guideline for the users of aged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7, pp.323-331, 2015.

[17] Young-Ae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1, pp. 15-20, 2011.

[18] Jong-Yun LEE, "r-Learning and Educational Information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 No. 1, pp. 1-15, 2010.

이 향 수(Lee, Hyang Soo)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행정학부 교수
・관심분야 : 지식관리,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정보격차
・E-Mail : yun7ju7@kku.ac.kr

이 성 훈(Lee, Seong Hoon)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
・E-Mail : lee.seonghoon@yahoo.com

최 정 아(Choi, Jeong A)

・2002년 2월 :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200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2005년 3월 ~ 현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정보화평가, 성과관리, 정보격차
・E-Mail : cja@nia.or.kr